



금석문과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

The Village Structures of Silla in the Sixth Century based on Epigraphs and Wooden Tablets

저자 (Authors)	Lee, Kyoung Sup
출처 (Source)	사학연구 (132) , 2018.12, 231-265(35 pages) 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132) , 2018.12, 231-265(3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학회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92072
APA Style	(2018). 금석문과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 사학연구(132), 231-26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2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금석문과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

李京燮

(동국대학교 사학과 강사)

머리말

I. 포항중성리신라비의 村落과 宮

II. 성산산성 목간의 촌락과 수취

III. 節居利와 也尔次, 촌락의 사람들

맺음말

● 투고일: 2018. 4. 18. ● 심사일: 2018. 4. 19. ● 게재확정일: 2018. 4. 25.

● <https://doi.org/10.31218/TRKH.2018.12.132.231>

요약

이 글은 6세기의 금석문과 목간 자료를 활용하여 신라 촌락의 내부 구조와 그 실상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시기인 麻立干시대의 촌락사회는 在地首長의 인격적인 지배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외부적으로는 신라 6部에게 정치적·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貢納과 奉仕의 책임을 다하는 복속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지 사회의 정황은 6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 계층 분화에 따른 촌락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6부 체제를 극복하면서 등장하는 신라의 새로운 권력 구조에 직면하게 되면서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촌락의 공동체적 질서 속에 존재하던 사람들을 신라국가의 公民으로 개인화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었다.

성산산성 목간의 本波·阿那·末那·前那 등의 용례는 村 내부적인 地域(區域) 방향과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였으며, 이것은 곧 촌락의 분화 양상과 구조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표기였다. 당시 신라의 촌락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 자체 불균형적인 성장과 소멸의 과정을 경과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이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촌락사회의 안정적인 지배를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취의 과정에서 제작된 성산산성 목간에 이와 같은 촌락 내부의 현상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지배의 시선에서 촌락공동체 내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촌락과 촌락민의 경제력 등의 처지에 따른 세액의 차등 부과와 민과 노인의 공동 납부 등의 양상은 당시 신라 국가가 村落의 현황과 내부 民의 정치경제적 사정까지도 파악하고서 수취를 진행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포항냉수리신라비」의 분쟁 사실은 여전히 공동체적인 운영원리가 촌락민을 강하게 규정하는 가운데 국가가 財의 분쟁 등에 개입하면서 재

지수장층을 정점으로 공동체적 성격이 내부화된 촌락사회를 분해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단양적성신라비』의 赤城烟이나 성산산성목간을 통해 볼 때 6세기 중엽의 신라에서는 촌락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戶口조사가 이루어져 개별적 인신지배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밝혔다.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촌락 자체는 분화하고 있었다. 촌락사회의 이러한 변동은 고대국가의 중앙집권화 과정에 연동하여 그 내부적 변화를 경과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촌락사회 내부의 자체적인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6세기 촌락은 首長과 民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적인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신라 국가라는 外力과 끊임없이 拮抗하였고, 그 결과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공동체로서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주제어 : 신라, 촌락, 포항중성리신라비, 포항냉수리신라비, 성산산성목간, 단양적성신라비

머리말

村落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이자 단위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집단인 가족 등이 모여서 사회생활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 지역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촌락은 우선 村이 등장한 이후 落과 결합하여 파생되었다고 생각된다. 村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삼국지』에 비로소 등장하며, 그것이 일반화되는 시기는 南北朝時代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견주어 한국고대사에서는 「광개토왕릉비」(414)에 촌의 용례가 확인되기 때문에 대략 4세기 무렵부터 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보인다.¹⁾ 촌락이 역사에 등장하기 이전 城邑國家 단계의 邑落은 원래 인구가 밀집된 중심 취락을 의미하는 邑과 그에 예속된 다수의 聚落으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촌락 또한 중심 취락으로서의 촌과 여러 개의 기초적인 취락의 구조를 개념화하여 성립한다.²⁾

이러한 촌락은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여러 개의 기본 단위인 취락의 중층적인 결합 구조로 형성된 하나의 단위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며, 직접적인 구성원인 촌락민의 시각으로는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혹은 혈연적 주거집단으로부터 소규모 취락집단, 나아가 촌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체들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연대와 규제 속에서 형성된 집단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한국고대사에서의 촌락 연구는 촌락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저마다의 시선과 입장, 즉 국가와 촌락의 존재 양상으로부터 형성된 역사적 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1) 주보돈, 2000, 「신라 중고기 촌의 성격」, 『경북사학』 23, 1~2쪽.

2) 이상의 촌락의 용어 및 개념은 주보돈, 2007, 「韓國 古代 村落史研究의 進展을 위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8, 12~19쪽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촌락과 관련된 사료의 경우 매우 零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시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 또한 국가의 촌락 지배라는 관점에서 지방통치체제와 그 운영의 실체를 해명하는데³⁾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어려운 사료적 환경 속에서도 촌락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이 촌락 내부의 구체적인 實相에 접근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⁴⁾

신라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지방사회에 세웠던 다수의 石碑 자료들이 알려져 왔으며, 일본 정창원에서는 「村落文書」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관련 연구를 크게 진작시켰던 1980년대의 「浦項冷水里新羅碑」·「蔚珍鳳坪里新羅碑」와 더불어, 최근에 이르러서도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발굴과 「浦項中城里新羅碑」의 발견이 이어지면서 부족하나마 신라 지방사회와 촌락 연구의 자료적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들 다수가 6세기에 집중되는 자료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촌락 연구의 지향이 촌락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6세기 신라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토대로 최대한 촌락의 내부 구조와 촌락민의 존재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향후 국가의 지배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과 연동하여 촌락과 촌락민으로 구성된 촌락

3) 李鍾旭, 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 이종욱, 1980, 「新羅帳籍을 통하여 본 統一新羅의 村落支配體制」, 『歷史學報』 86 ; 李宇泰, 1981, 「新羅의 村과 村主」, 『韓國史論』 7 ; 이인철, 1993, 「新羅의 村과 村民支配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강봉룡,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훈, 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보돈, 1995, 「新羅 中古期의 地方統治와 村落」,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 윤선태,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在弘, 2001,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주보돈, 2007, 「韓國 古代 村落史研究의 進展을 위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8 참조.

공동체의 내부적 변화를 시간적으로 특징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대국가의 지배 裏面에 숨어 있는 촌락의 실상에 접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부족한 점들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I. 포항중성리신라비의 村落과 宮

「포항중성리신라비」(이하 중성리비, 441 혹은 5015)는 현재까지 알려진 신라 최고의 비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알려진 신라비와는 다른 내용들도 다수 확인되어 비문의 해석과 내용에서 많은 異見들이 제시되었다.⁶⁾ 대체로 그 내용은 분쟁의 당사자들인 6부의 爭人들이 지방의 村落과 民을 대상으로 다툼을 벌였던 기록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기왕의 연구들에 기반하여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고,⁷⁾ 촌락의 존재 양상과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던 宮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비문의 판독과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5) 비석의 연대는 현재까지 501년설이 우세한 듯하지만, 441년설 또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 6) 중성리비의 연구사로 다음 글들이 참고가 된다. 홍승우, 2012,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분쟁과 판결」, 『신라 최고의 금석문 포항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주류성 ; 이부오, 2014,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시사점」, 『韓國古代史探究』 16.
 - 7) 현재까지 비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는데, 윤선태(2012,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보여주는 ‘소리」, 『신라 최고의 금석문 포항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주류성)와 주보돈(2012, 「포항중성리신라비의 構造와 내용」, 『한국고대사연구』 65)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비문의 진상에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의 비문 구조 분석은 이들 연구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증성리비

- 1행 : ㉞辛巳…………折盧ㄴ…………
- 2행 : 喙部習智阿干支沙喙斯㉞智阿干支
- 3행 : 教 / ㉞沙喙尔抽智奈麻喙部㉞智奈麻本牟子
- 4행 : 喙沙利夷斯利白爭人喙評公斯弥沙喙夷須牟且
- 5행 : 伐喙斯利壹伐皮朱智本波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
- 6행 : □干支祭智壹伐 / ㉞使人奈蕪毒只道使喙念牟智沙
- 7행 : 喙鄒須智世令于居伐壹斯利蕪豆古利村仇鄒列支
- 8행 : 干支比竹休壹金智奈音支村卜步干支走斤壹金知
- 9행 : 珍伐壹㉞ / ㉞云豆智沙干支宮日夫智宮奪尔今更還
- 10행 : 牟且伐喙作民 / ㉞沙干支使人卑西牟利白口若後世更
- 11행 : 善人者與重罪 / ㉞典書与牟豆故記
- 12행 : ㉞沙喙心刀哩□

위에 제시한 비문은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를 중심으로 문단의 구분을 시도한 것인데,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㉞는 교의 주체를 명시한 문단으로 辛巳年에 …折盧ㄴ…와 喙部 習智阿干支·沙喙(部) 斯㉞智阿干支가 教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㉞는 沙喙 尔抽智 奈麻·喙部 ㉞智 奈麻 등이 6부의 지배층으로 보이는 분쟁의 당사자들인 爭人집단에게 教를 아뢰었다로 해석된다. 여기서 교의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㉞는 使人인 奈蕪毒只 道使 喙部の 念牟智와 沙喙部 鄒須智가 于居伐·蕪豆古利村·奈音支村·珍伐의 재지수장층에게 이때에[世 : 교가 내려왔을 때] 습하였다⁸⁾ 정도로 볼 수 있다. ㉞의 云 이하 ‘豆智沙干支宮日

8) 증성리비와 냉수리비의 경우 教(혹은 別教)가 내려지게 되면, 그것이 습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教를 법적 효력의 근원으로 하고 습이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현실에서 시행되는 법을 教守法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김창석

夫智宮奪尔今更還牟且伐喙作民’은 敎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豆智沙干支宮과 日夫智宮이 빼앗은 것을 지금 다시 모단벌락의 作民으로 되돌리라’는 의미라고 보인다. 여기서 云은 敎의 내용을 인용하여 전하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㉞는 ‘(豆智)沙干支(宮)의 使人인 卑西牟利가 “만약 나중에 다시 말하는 자가 있다면 무거운 죄를 줄 것이다”라고 白口하였다’ 정도로 해석된다. 여기서 白과 口는 모두 구술의 의미를 지닌 글자인데, 입으로 아뢰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¹⁰⁾ ㉞는 典書 与牟豆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였다는 의미이며, ㉟는 마지막 글자가 불분명하지만 沙喙(部) 心刀哩가 □하였다고 마무리되고 있다.

이러한 비문의 해석과 내용에서 보면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6부 지배층의 구성원들인 탁부의 評公斯弥, 사탁부의 夷須, 모단벌락의 斯利 壹伐과 皮朱智, 본과탁의 柴 干支와 弗乃 壹伐, 金評의 □干支와 祭智 壹伐이며, 분쟁의 지역과 대상은 道使가 과건된 奈蕪毒只를 중심으로 했던 于居伐·蕪豆古利村·奈音支村·珍伐 등의 촌락과 作民이었다고 생각된다.¹¹⁾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에서 奈蕪毒只는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智習阿干支와 斯(德)智阿干支 등의 敎를 현지에서 布告하는 자리에는 나소독지의 재지수장은 보이지 않은 채 于居伐의 壹斯利, 蕪豆古利村的 仇鄒列支干支와 比竹休壹金智, 奈音支村的 卜步干支와 走斤壹金知, 珍伐의 壹(田) 만이 확인되고 있다. 奈蕪毒只의 경우 豆智沙干支宮과 日夫智宮으로부터 奪尔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¹²⁾ 그 이유는

2010, 「신라 法制의 형성 과정과 율령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8, 204쪽).

9) 비문 ㉞의 白과 ㉞의 白口는 모두 口頭의 행위를 표현한다고 보이는데, ㉞에서 특별히 白口라고 서사한 것은 입으로 말하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書法으로 여겨진다.

10) 白과 口를 나누어 해석하기도 하지만 따르지 않는다.

11) 냉수리비의 탐수도사도 행정촌인 탐수에 과건되어 예하 촌락인 진이마촌의 일을 처리하였을 것이다. 주보돈, 2012, 앞의 글, 139쪽 참조.

12) 이 문제는 도사의 기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일단 도사가 파견된 촌락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도사의 이해와 관련하여 주목되었던 것이 아래의 기사이다.

(炤知麻立干 9年) 三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¹³⁾

이 기사는 소지마립간 9년(487)에 이르러 처음으로 사방에 우역을 두고 所司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라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다. 도사를 ‘官道에 파견된 使者’라는 의미로 풀이하면서 郵驛의 설치와 官道の 수리는 도사의 파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 때 신라에서 도사가 처음 지방에 파견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도사는 관도가 통하는 중요한 거점에 파견되었으며 王命을 대행하여 지방민에게 政令을 전달하고 租稅를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奈菴毒只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거점이었기 때문에 도사가 파견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㉔에서는 奈菴毒只道使에게 使人이라는 役名이 더해져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사인은 분쟁에 대한 평결과 처리 방안을 내린 敎를 현지에 슈으로 전하는 임시적인 역명으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원래의 職任인 도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⁵⁾ 위에서 언급했던 도사의 역할은 중고기 이후의 도사에는 부합된다고 생각되지만, 중성리비의 도사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중성리비의 도사는 마립간 시대의 도사와 지방지배의 양상을 전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1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炤知麻立干 9년.

14) 주보돈, 1998,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60~70쪽. 그러나 중성리비가 알려지게 되면서 도사의 기원 문제는 새롭게 검토해볼 여지가 제공되었다고 생각한다.

15) 奈菴毒只道使가 使人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奈菴毒只 예하의 촌락이나 모종의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면 중성리비의 도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麻立干[麻錦]’에게 私적으로 예속된 家臣의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등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냉수리비의 典事人집단에 관등 표기가 없는 탐수도사가 보이는데, 이는 중성리비의 使人奈蘓毒只道使와 같은 처지의 道使¹⁶⁾였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마립간시대의 지방지배는 6부의 개별적인 지배가 유지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대략 거점촌락¹⁷⁾을 중심으로 마립간의 도사가 파견되고 주변에 다른 부의 使人¹⁸⁾들이 함께 진출하여 지방에 대한 6부의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중성리비의 촌락 지배에서 확인되고 있다.¹⁹⁾

4개 촌락과 관련된 作民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했던 豆智沙干支宮과 日夫智宮에 대해서는 대체로 6부 지배층에 속하며, 豆智沙干支와 日夫智로 대표되는 집단의 田莊 혹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沙干支의 관등을 지니며 분쟁의 당사자들인 쟁인 집단에서 탁부의 評公斯弥와 사탁부 夷須의 존재가 이들 궁에 대응한다고 본다²⁰⁾ 탁부와 사탁부의 豆智(沙干支)와 日夫智를 정점으로 하는 家系の 家産기구적

16) 道使라는 직명의 의미도 ‘(官)道에 파견된 使者’라기보다 ‘(官)道에 보내진 使人’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타 다른 부나 세력의 使人과 마립간의 使人을 구분짓기 위한 이름일 가능성도 있겠다.

17) 여기서의 거점촌락 전략은 두 가지가 예상된다. 하나는 기존의 촌락사회 내에서 거점을 설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이나 전쟁 등의 목적을 위해서 築城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18) ㉞에서 豆智沙干支宮의 使人인 卑西牟利가 확인되고 있는데, 다른 부에서도 이와 같은 使人들을 파견하여 해당 지역과 인민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중성리비의 촌락들이 왕경 6부나 개별 부의 직할지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문기, 2009, 「포항中城里新羅碑의 발견과 그 의의」, 『韓國古代史研究』 56), 마립간기 신라의 영역이 왕실직할지와 각 부의 干支가 주관하는 지역이 나뉘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노중국, 2010,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59).

20) 후보돈, 2012, 앞의 글 참조.

성격을 지닌 것이 중성리비의 궁이었다고 생각된다. 신라 왕실의 재정기 구인 內省은 大宮·梁宮·沙梁宮의 3궁을 연원으로 6부체제의 극복 이후 다른 부의 궁 조직 또한 귀속시키면서 국가적 지배기구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이들 궁은 財貨·田莊·奴僕 등의 자산과 관리자(舍人계층)들로 이루어져 있었다.²¹⁾ 그러나 중성리비의 발견으로 이와 같은 궁 조직이 麻立干期 이래 탁부와 사탁부의 유력 家系들 내부에서도 자산조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비문대로라면 탁부와 사탁부 내의 일부 家系집단과 모단벌탁과의 분쟁²²⁾이었다는 점에서²³⁾ 탁부·사탁부와 나머지 4부와의 정치경제적 격차감이 느껴진다. 이미 「냉수리비」와 「봉평리비」의 敎事집단 분석을 통하여 국가적 공문체계가 왕권을 중심으로 한 탁·사탁 2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고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같은 추세는 마립간시대를 경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고 생각된다.²⁴⁾ 어찌되었건 중성리비에 나타난 분쟁의 결과 2궁이 탈취했던 것을 모단벌탁으로 되돌려주게 되었으며,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作民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作民은 비문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耕作民일 가능성이 크다. 궁의 구조가 財貨·田莊·奴僕·관리자계층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렇

-
- 21) 이경섭, 2001, 「新羅 上代の 粟主와 內省」, 『한국고대사연구』 22, 206~218쪽.
 22) 중성리비의 분쟁과정을 통하여 탁·사탁부는 지배층 개인 단위의 소유권이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였고, 모단벌탁은 여전히 공동체적 소유 관계에 입각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홍승우, 2014,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신라의 부와 지방지배」, 『한국문화』 66, 219쪽).
 23) 쟁인집단에는 喙評公斯弥沙喙夷須牟且伐喙斯利壹伐皮朱智本波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干支祭智壹伐가 보이는데, 탈과 환의 주체가 2궁과 모단벌탁이었다는 점에서 本波喙과 金評의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의문이 남는다. 4개 촌락의 작민에 대한 지배와 관련하여 本波喙과 金評도 참여했던 것인지, 아니면 점점 경제력을 확장해가던 탁부·사탁부를 견제하기 위해 모단벌탁의 쟁송에 관여했던 것인지 비문으로만 봤을 때 불분명한 점이 있다.
 24) 전덕재, 1996, 『신라육부체제연구』, 일조각, 57~83쪽.

게 볼 때 2궁이 모단벌탁의 작민을 빼앗았던 이유는 궁 소유의 토지[田]를 경작하거나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기 위한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奈蘓毒只와 주변 4개의 촌락(于居伐·蘓豆古利村·奈音支村·珍伐)으로 형성된 촌락군에서 모단벌탁이 4개 촌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2궁이 처음 위치한 곳은 奈蘓毒只였을 가능성도 있다. 궁의 경제력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더 많은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奈蘓毒只 주변 촌락의 작민을 탈점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노동력의 징발과 관련해 ㉔에 등장하는 于居伐의 壹斯利, 蘓豆古利村의 仇鄒列支干支와 比竹休壹金智, 奈音支村의 卜步干支와 走斤壹金知, 珍伐의 壹罍이 주목된다. 분쟁의 진행상에서 이들은 世습에 의해 철저히 대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면 신라 6부라는 외부의 압력에서 촌락의 공동체적 질서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일 수 있다. 이들은 6부에게 인정받은 干支-壹金知의 위계를 지니며, 작민들을 대표해 이름이 거론되어 승을 받든 데에서 각 촌락의 재지수장급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목상 6부의 지배체제가 작동하는 현실에서 2궁이 군사력과 같은 경제외적 강제 등을 동원해 작민을 탈점하였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 촌락 수장들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에서 작민의 노동력이 징발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철제농기구와 같은 선진적 생산도구 등이 2궁에서 贈與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⁵⁾ 현재의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모단벌탁은 6부 상층의 공론기구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중성리비 단계에서 재지사회는 여전히 수장의 전통적인 지배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5) 신라 철제농구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4세기 중후반에 확산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5세기 전반의 광역적인 확산 이후 내부적·계층적으로 확산되는 추이를 지적한 연구가 주목된다. 이하나, 2013, 「신라 철제농구의 변천과 확산」, 『한국고고학보』 8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라 마립간시대의 촌락사회는 내부적으로 재지수장에 의한 인격적인 지배가 유지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사로 6부에게 정치적·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貢納과 奉仕의 책임을 다하는 복속 형태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지사회의 정황은 6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 계층 분화에 따른 촌락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²⁶⁾ 사로국의 6부체제를 극복하면서 등장하는 신라의 새로운 권력구조에 직면하게 되면서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촌락의 공동체적 질서 속에 존재하던 사람들을 신라국가의 公民으로 개인화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었다.

II. 성산산성 목간의 촌락과 수취

함안 성산산성 목간은 신라 진흥왕대 촌락의 존재 양상과 수취의 실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²⁷⁾ 수많은 촌락의 이름들이 촌·성의 형태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며 수취를 부담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구리별목간은 구리별²⁸⁾로 추정되는 목간까지 가장 많은 개체 수가 발굴되어 당시 신라 촌락의 실상을

-
- 26) 냉수리비의 절거리 家系와 말추·사신지의 재물을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7) 성산산성 목간의 연대는 일반적으로 560년대 무렵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최근 壬子年목간(219호 목간, 壬子年□改大村□刀只/米一石)이 알려지면서 592년(진평왕 14)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干支年을 표기한 荷札이 全無하다는 書式상의 이질감이나 壬子年 판독의 문제, 外位 표기의 변화, 592년 진평왕대의 시대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목간의 연대는 여전히 진흥왕대인 6세기 중후반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성산산성 목간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 28) 구리별의 지명 비정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曲城郡(현재 안동시 임하면)이다. 원래 고구려의 屈火郡이었으며, 신라본기 무열왕 2년조 기사에 屈弗郡으로 등장한다.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아래의 표는 구리별목간과 추정 구리별목간들을 정리한 것이다.²⁹⁾

【표 1】 仇利伐(추정) 목간과 奴人 목간

仇利伐 목간 (19점)		※ 음영은 奴人 목간			
6	「 仇利伐 𠄎谷村 仇利支 負 √ 」	293×35×7			負 1인
7	「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 」	290×31×10			1인
9	「 𠄎利 只卽 奴 於 支 負 √ 」	296×38×7	奴		負 2인
69	× 仇利伐 不夫 支 負 √ 」	(297)×45×9			負 1인
80	× 仇利伐 比夕須 奴 先能支 負 ○ 」	(323)×32×6	奴		負 2인
107	「 𠄎利 支 負 只 奴 伐 支 負 √ × 」	(248)×28×6	奴		負 2인
116	「 仇利伐 郝豆智 奴人 支 負 √ 」	220×39×7	奴人		負 2인
120	「 仇利伐 仇陲知一伐 奴人 毛利支 負 √ 」	243×30×6	奴人	一伐	負 2인
142	「 仇利伐 習 村 牟利之 負 √ 」	286×32×7			負 1인
144	× 仇利伐 今你次 負 √ 」	252×37×10			負 1인
169	「 仇利伐 詩本礼兮 負 √ 」	243×38×4			負 1인
173	「 仇利伐 √ 」 「 谷村 伊西比支 負 √ 」	285×46×7			負 1인
209	「 仇利伐 上多者村 支 負 √ 」	288×37×9			1인

29) 이경섭, 2012, 「신라의 노인」, 『한국고대사연구』 68 ;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에서 정리한 구리별목간과 노인 목간을 참고하였으며, 이후 새로 발굴된 목간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한국의 고대목간』 II에서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이 표의 목간 번호는 『한국의 고대목간』 II에서 넘버링한 연번이며, 목간의 판독은 『한국의 고대목간』 II의 판독안을 참고하여 정리한 私見임을 밝혀 둔다.

금석문과 목간으로 본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

212	「丘利伐 卜今智上干支 奴 □□巴支 負」	∨」	219×35×4~ 13	奴	上干 支	負	2인
213	「仇利伐 夫及知一伐 奴人 宋巴禮 負」	∨」	217×26×5	奴人	一伐	負	2인
222	「仇利伐 上多者村 波婁	×	(236)×44×7				1인
232	「仇利伐 上多者村 「乞利	×	(237)×30×9				1인
243	「仇利伐 □□一伐 余利□負」	」	228×33~38 ×6~9		一伐		2인
244	「仇利伐 □德知一伐 奴人 塩	×	(203)×31×6	奴人	一伐		2인
추정 仇利伐 목간 (7점)							
8	「 內恩知奴人 居助支 負 ∨」	∨」	276×33×6	奴人		負	2인
10	× 內只次奴 須禮支 負	∨」	(244)×35×8	奴		負	2인
11	× 比夕須奴 余先利支 負	×	(267)×47×7	奴		負	2인
83	× 末甘村 借刀利支 負	○」	(180)×36×7			負	1인
90	× 利伐 □ □ ∨」 × 一古西支 負 ^」	∨」 ^」	(243)×30×7			負	1인
97	× □ □ 一伐 奴人 毛利支 負 ∨」	∨」	(261)×32×5	奴人	一伐	負	2인
234	× 前谷村 阿足只 負	×	(167)×34×5			負	1인
기타 奴人 목간 (2점) _ 丘伐							
95	「 仇伐未那 沙刀禮奴 ∨」 「 弥次分 稗石 ^」	∨」 ^」	198×20×5	奴		稗石	2인
207	「 仇伐未那 早戶智居伐尺奴 ∨」 「 能利智 稗石 ^」	∨」 ^」	207×21×7	奴		稗石	2인

성산산성 짐꼬리표목간이 행정촌 단위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³⁰⁾ 행정촌인 구리별은 중심 자연촌락인 구리별과 주변의 자연촌락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행정촌인 구리별은 구리별과 上 叒者村 · 田谷村 · 習田村 · □□谷村 · 前谷村 · 末甘村이라는 자연촌락으로 구성되었으며, 구리별이 중심 자연촌락으로 이들 촌락을 대표하면서 국가에 의하여 행정촌으로 규정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구리별은 중심 자연촌락인 구리별을 포함하여 7개의 촌락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대체로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에서 평균적이거나 이를 조금 상회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간주해도 좋을 듯하다. 중성리비에서는 奈蘓毒只와 于居伐 · 蘓豆古利村 · 奈音支村 · 珍伐 등 5개의 촌락이 하나의 촌락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³¹⁾ 蔚珍鳳坪碑(524)에서는 중심촌락인 居伐牟羅를 중심으로 男弥只村, 阿大兮村, 葛尸條村 등 4개 촌락이 확인되고 있다.³²⁾ 大邱戊戌塙作碑(578)에는 塙를 축조하는데 참여했던 촌락으로 仇利支村, □村, 夫作村, 居毛村, 另冬里村, 琺得所利村, 塙琺此只村 등 7개의 촌명이 보인다.

이렇듯 6세기 신라의 촌락은 대개 4~7개의 자연촌이 하나의 행정촌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중심적인 자연촌락의 이름이 行政村名으로 사용되었다. 성산산성 목간의 구리별은 바로 이러한 촌락 구조를

30) 전덕재, 2007,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 이경섭,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 목간의 지명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2013, 앞의 책에 수록).

31) 나소독지의 경우 道使의 職任과 관련한 직명일 가능성이 있다. 作民으로 조정되는 4개 촌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하간 나소독지도사가 중앙部와 해당 村落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나소독지(도사)와 4개 촌락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2) 남미지촌이 거벌모라 예하의 촌락인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아대혜촌과 갈시조촌이 거벌모라 예하의 촌락인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봉평비의 行刑 내용으로 보아 아대혜촌과 갈시조촌 또한 남미지촌과 마찬가지로 거벌모라 예하의 촌락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가장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성산산성목간 가운데 다른 행정촌(성)의 경우, 古陁가 4개, 甘文城이 3~4개, 仇伐이 2개, 夷津支城이 3개, 鄒文村이 3개 정도의 촌명이 확인되는 것에서³³⁾ 구리벌의 村勢는 上州에서도 매우 규모가 큰 행정촌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꼬리표 목간 중에는 중심촌락인 구리벌의 목간이 전체 26점 가운데 15점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목간으로 볼 때 구리벌에서의 수취가 가장 활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행정촌 구리벌의 중심촌락이었던 구리벌이 여타 주변 촌락에 비하여 촌민의 수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대사회에서 노동력이 차지하는 생산력의 비중을 염두에 둘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구리벌이 주변 촌락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었으며, 수취의 부담 또한 거기에 상응하여 담당하였을 것이다.

인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목되는 것이 구리벌의 奴人이다. 노인은 봉평비를 통하여 변경지역에서 새롭게 편입된 집단적 예측민의 존재로 알려졌는데, 구리벌의 노인은 봉평비의 노인과는 변화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봉평비의 노인은 남미지촌이라는 노인촌 단위로 집단적 거주 형태를 보이는데, 구리벌의 노인은 일반민들과 행정촌인 구리벌의 중심촌락에 함께 거주하며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래 노인은 原거주지에서 徙民되어 행정촌(성)의 예하의 노인촌으로 규정된 촌락(봉평비의 남미지촌)에 거주하면서 촌 단위의 稅役을 부담하고 주변 촌락의 감시와 규제를 받는 존재였는데, 구리벌의 노인은 행정촌의 중심촌락으로

33) 목간에서 확인되는 촌락의 수는 유동적이라고 생각된다. 甘文과 須伐(沙伐)은 州治級이었으며, 鄒文은 赤城碑에서 幢主가 파견되었던 주요 거점이었다. 仇伐 또한 소지마립간 때 築城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행정성(촌)이었음이 분명하다. 古陁와 夷津(支城)은 목간의 기재내용에서 다수의 자연촌이 예하에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34) 물론 출토되어 알려진 목간만으로 당시의 정확한 村落의 현실을 추구하기란 문제가 있겠지만, 대세적인 이해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徙民되어³⁵⁾ 거주하면서 개별적인 세액을 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徙民은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의미하므로 村勢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듯 신라사회 외부에서 유입되었던 노인과 같은 대상의 사민은 기본적으로 지방사회에서 그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과 개별적인 자립 家戶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춘 촌락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구리벌의 노인 목간은 모두 복수의 인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노인 + 일반민의 형식으로 목간에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노인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한다. 구리벌목간에는 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목간의 말미에는 荷物인 짐을 의미하는 負가 기재되어 있다. 이 負는 약속된 세액을 의미하므로 1인만 기재된 목간과, 같은 세액을 2인이 부담하였던 것이 된다. 결국 이들 2인은 반액의 세액을 감면받은 셈이므로 2인 모두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이 내려졌던 것이다.³⁶⁾ 여기서 노인은 公民化 정책에 따른 우대의 일환으로 세액을 감면받았다고 생각되며, 함께 세금을 납부했던 촌민은 그 경제력이 빈한한 상태였거나 연령 등급 등에 따라 국가적인 보호 차원에서 공동 납부자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당시 국가는 村落의 현황과 내부 民의 정치경제적 사정까지도 파악하고서 수취를 진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봉평비 단계의 노인(법) 규정은 일반 촌민에 비하면 그 부담이 무거웠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진흥왕대에는 오히려 노인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구리벌목간의 노인에 대한 시책은 기존 노인

35) 행정촌의 중심촌락인 구리벌에는 일반민이 거주하였는데, 노인이 이곳으로 徙民되었다고 생각된다.

36) 윤선태는 처음으로 복수 인명이 기재된 목간을 세금 감면의 시각에서 이해하였지만, 구리벌목간의 노인을 奴婢로 간주하고 ‘누구의 노비인 누구’라고 해석하여 1인의 집꼬리표로 주장하였다(2012,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림』 41).

집단의 공동체적 관계를 분해시켜 개별적 인신지배를 도모하여 원래 복속민이었던 이들을 신라의 公民³⁷⁾으로 轉化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진흥왕대의 복속민 정책과 관련하여 단양적성비(550)의 也尠次 가족과 집단에 대한 恩典이 주목된다. 야이차집단은 새롭게 정복한 적성지역의 유력계층으로 짐작되는데,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에 국가적인 은전이 지급되었다. 비문의 좌상단부분이 결락되어 也尠次집단의 복원과 은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나, 대체로 外位의 수여와 경제적인 특혜가 내려졌던 것으로 이해된다.³⁸⁾ 이것은 공격을 세운 복속민에 대한 정책이지만, 진흥왕대의 비약적인 국가적 성장과 영토확장의 과정에서 일반 복속민에 대한 정책도 과거의 노인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진흥왕은 새롭게 복속시킨 한강 유역을 순행하고서 지나온 州郡의 租調를 면제하고 赦免을 시행하였다.³⁹⁾ 租調가 면제된 지역은 새로 복속된 지역이 중심이었다

37) 이 글에서 사용하는 公民의 의미는 공적 기구로 확립된 국가의 통치대상이자 국가의 유지를 위한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홍은 7세기 이후의 민에 대해, 丁田·烟受有田畝의 지급을 통해 보다 확고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의식의 기반을 갖춘 공민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일방적 관계(인신적 예속관계, 착취의 대상)에서 쌍무적 관계(국가제정의 담당자)로의 전환으로 이해한다(1995, 『한국사의 고·중세 시대구분』, 『한국고대사연구』 8). 이창훈은 前단계사회의 인신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립성을 갖춘 개별 가호로 존재하는 자영농적인 존재로 상정한다. 나아가 공민으로서의 자립성은 국가로부터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한다(1999, 「7세기 신라 民의 제편과정」, 『한국고대사연구』 16). 이러한 공민의 이해는 國家와 民의 관계만을 중시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民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在地사회(특히 村落)는 首長과 民의 제지적·인격적·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일본의 在地首長制論이 참고가 된다(石母田正, 1971,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결국 民-在地首長-국가라고 하는 중층적인 관계의 형성과 분해야말로 고대국가의 인민 지배의 전개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국가가 민을, 촌락과 재지수장이라는 중간(자)적인 존재 없이 개별 인신적으로 지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공민화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38) 이우태, 1992, 「단양 신라 적성비 건립의 배경-야이차의 공적과 은전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8

39) 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十一月 至自北漢山 敎所經州郡 復一年租調 曲赦除

고 여겨지며, 이러한 사실은 새롭게 확보한 촌락과 민에 대한 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노인으로 규정되었던 이들에게도 적극적인 공민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구리별목간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처우가 봉평비에 견주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리별목간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외위를 지닌 자들도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표에서 外位소지자로 卜今智上干支奴(212), □陟□一伐(243)과 □德知一伐奴人(244), 仇陟知一伐奴人(120)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上干支(6등), 一伐(8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촌민과 함께 납부하였던 것에서 외위 소지자들도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받았던 것 같다.⁴⁰⁾ 이것은 재지 촌락사회에서 외위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성산산성 목간에서 당시 촌락의 구조를 생각할 때 주목되는 것이, 城村名임이 분명한 단어 뒤나 지명과 지명 사이에 묵서된 本波·阿那·末那·前那 등의 용례이다. 이들 용어는 일종의 村 내부적인 地域(區域) 방향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⁴¹⁾ 那가 어떤 지역(구역)을 의미한다고 할 때, 前那의 경우 ‘앞쪽의 那(지역)’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阿~(西/下)와 末~(北/後)도 방향(방위)이나 위치를 의미하며, 같은 용법인 本波 또한 地域(區域) 방향과 범위의 의미로 사용되어 해당 村(城) 안에서 중앙부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아래는 本波·阿那·末那·前那의 용례가 잘 드러나는 고타목간의 사례이다.

古陟는 『삼국사기』 지리지 尙州조에 高昌郡으로 본래는 古陟耶郡이

二罪 皆原之[『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眞興王 16년(555)]

40) □德知一伐奴人(26)과 仇陟知一伐奴人(156)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세금 감면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41) 이경섭,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 목간의 지명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 사학보』 23 ; 2013, 앞의 책, 142~152쪽.

【표 2】 古陁목간의 사례

번호	판독	크기	비고
1	「古陁伊骨利村阿那衆智卜利古支」 「稗發」	243×25×7	이골리촌 阿那
2	「古陁新村智利知一尺」 「豆兮利智稗石」	(209)×19×8	신촌, 一尺
4	「古陁一古利村末那」 「毛羅次尸智稗石」	212×29×5	일고리촌 末那
89	「古陁伊骨利村阿那」 「仇利稿支稗發」	(134)×23×5	이골리촌 阿那
99	「古陁新村阿那利」 「沙」	204×21×6	신촌
100	「古陁一古利村末那」 「利夫稗石」	(167)×25×5	일고리촌 말나
103	「古陁一古利村末那仇」 「稗石」	(212)×25×4	일고리촌 말나
106	「古陁一古利村末那」 「乃兮支稗石」	(185)×24×3	일고리촌 말나
114	「古陁一古利村阿那弥伊」 「稗石」	220×20×3	일고리촌 아나
122	「古陁一古利村末那沙見」 「日糸利稗石」	(205)×26×5	일고리촌 말나
127	「古陁利村」 「稗石」	(112)×17×3	利村
146	「古陁本波豆村」 「勿大兮」	17×15×3	고타 본파 두촌
181	「古陁一古利村本波」 「随々只稗發」	(158)×22×4	일고리촌 본파
189	「古陁一古利村本波」 「随々只稗發」	182×22×18	일고리촌 本波
192	「古陁伊末上干一大兮伐」 「豆陁幼」	208×20×6	上干
239	「古陁伊骨利村」 「仇仍支稗麥」	(126)×22×5	이골리촌

었으며, 이 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斯盧國 단계의 신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중심촌락인 고타를 중심으로 촌락 권역을 유지하다가 증고기에 이르러 중요한 행정촌으로 설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산산성 목간에서는 중심촌락으로 생각되는 古陘와 더불어 伊骨利村(伊骨村·一古利村과 같은 촌락), 密村, 新村 등이 확인된다. 먼저 新村의 경우에서 古陘가 오래된 촌락임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촌락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촌락의 등장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주거와 경제생활에서 유리한 景觀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자연적인 인구증가의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촌락 내외부의 권력 의지에 의해 새로운 촌락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古陘(村)에서 本波·阿那·末那의 용어가 사용된 곳은 伊骨利村이다. 이 촌락은 기본적으로 중심촌락인 고타의 예하 자연촌락이지만, 꽤 넓은 범위와 방향으로 촌민이 거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伊骨利村 내부적으로 本波·阿那·末那 지역의 구분이 필요할 만큼 촌민들의 住居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곧 촌락 내의 상당한 聚落들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촌락의 성장은 자연촌락 내에서 新村과 같은 새로운 촌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伊骨利村 자체가 전혀 새로운 행정촌으로 성장전환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당시 신라의 촌락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 자체 불균형적인 성장과 소멸의 과정을 경과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이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촌락사회의 안정적인 지배를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취의 과정에서 제작된 성산산성 목간에 이와 같은 촌락 내부의 현상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지배의 시선에서 촌락공동체 내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촌락과 수취의 문제에서 주목되는 성산산성목간은 村落名과 稗石만 기재된 목간이다. 이러한 목간으로 丘伐稗(『목간자전』132호), 伊失兮村稗石(『목간자전』159호), 栗村稗石(『목간자전』161호),

丘伐稗石(『목간자전』173호) 등이 확인되고 있다. 성산산성목간의 기본적인 서식은 「지명(城村名) + 인명 + 수취물(稗 등) + 수취량」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수취물과 그 수량을 생략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명과 인명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목간이 행정촌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촌락을 대상으로 수취량이 부과되었지만, 납부의 책임은 목간에 기재된 이름의 개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촌락명과 稗石만을 기록한 목간은 상당히 예외적이다. 이에 대하여 지명과 인명만 기록된 목간은 개인의 荷札로 보기는 어려우며 촌락문서의 麻田에 대한 수취처럼 지역 공동납의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⁴²⁾ 稗石은 대다수의 목간에서 확인되듯이 수취의 부담자인 개인이 납부하던 품목과 수량(石은 一石을 의미)이 일치한다. 이를 목간에 기재된 대로 풀이하면 丘伐의 꽤 1석, 伊失兮村의 꽤 1석, 栗村의 꽤 1石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 목간의 해명은 丘伐, 伊失兮村, 栗村의 촌락 성격에서 유추되어야 한다.

먼저 이들 목간의 촌이 행정촌의 중심촌락이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성산산성목간에서 행정촌의 중심촌락으로 생각되는 곳에서는 모두 인명이 기록된 채 목간이 제작되었다. 이들 유형의 목간은 중심촌락이 아닌 주변의 자연촌락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소속 행정촌명이 없이 촌명과 稗石만 기재한 것은 납부자에 상관없이 촌락 단위로 세액이 부과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收稅방침은 해당 촌락의 공동납부를 허가한 것인데, 성산산성목간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당시 개별 人身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던 추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곧 해당 촌락이 당시 신라국가의 행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던 촌락과 촌민의 상황

42) 윤선태, 2012, 앞의 글, 174~175쪽. 그러나 일반 촌락의 촌민과 같은 稗石의 짐꼬리 표목간이기 때문에 麻와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공동 납부하는 경우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열악한 촌락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古陘 伊骨利村의 추정에서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촌락일 경우와, 반대로 촌락민의 도망이나 사망 등으로 기존 촌락의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가 상정된다. 丘伐, 伊失兮村, 栗村 등은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국가는 개인에게 부과되던 세금을 촌락 단위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세액을 감면하였기에 ‘~村稗石’ 유형의 목간이 제작되었던 것이다. 개인이 납부하던 一石 용량으로 짐꾸러미가 만들어졌다는 것도⁴³⁾ 해당 촌락에 부과된 전체적인 收稅額이 크지 않았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국가는 촌락 내부에서 奴人이나 貧窮人과 같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속한 촌락공동체 자체에도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節居利와 也尔次, 촌락의 사람들

冷水里碑(503)는 珍而麻村 내부에서 일어난 節居利의 ‘財’를 둘러싼 권리와 그 承繼에 관한 분쟁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촌락의 내부 사정과 촌락민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前面]

1행 : ㉔ 斯羅喙斯夫智王乃智王此二王教用珍而

2행 : 麻村節居利爲證尔令其得財教耳

43) 촌 단위의 공동납부물도 1석을 기준으로 수납하였던 것은 운반과 보관, 出荷의 편의를 위해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3행 : ㉞ ㉠ 癸未年九月廿五日沙喙至都盧葛文
 4행 : 王斯德智阿干支子宿智居伐干支
 5행 : 喙尔夫智壹干支只心智居伐干支
 6행 : 本彼頭腹智干支斯彼暮斯智干
 7행 : 支此七王等共論教 / ㉡ 用前世二王教
 8행 : 爲證尔 / ㉢ 取財物盡令節居利
 9행 : 得之教耳 / ㉣ 別教節居利若先
 10행 : 死後令其弟兒斯奴得此財
 11행 : 教耳 / ㉤ 別教末鄒斯申支
 12행 : 此二人後莫更善此財

[後面]

- 1행 : 若更善者教其重罪耳
 2행 : ㉦ 典事人沙喙壹夫
 3행 : 智奈麻到盧弗須 仇
 4행 : 休喙耽須道使心 訾公
 5행 : 喙沙夫那利沙 喙
 6행 : 蘇那支此七人跟 跪所白了
 7행 : 事煞牛拔 誥故記

[上面]

- 1행 : ㉧ 村主與支干
 2행 : 支須支壹
 3행 : 今智此二人世中
 4행 : 了事
 5행 : 故記

비문의 내용은 전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前世의 두 왕이었던 斯夫智王과 乃智王이 珍而麻村 節居利가 財를 취하라는 教를 내렸다(㉠)는 내용으로 비문이 시작하고 있으며, ㉡는 당대의 至都盧葛文王을 비롯한 7왕이 共論하여 내린 教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는 진이마촌 현지에서 집행관인 典事人집단이 일을 처리하고 煞牛의식을 행한 부분이며, ㉣는 재지세력인 村主 등이 확인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비문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인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㉑는 공론집단, ㉒는 ‘前世 두 왕의 교로써 증거한다’는 7왕이 내린 교의 冒頭에 해당한다. ㉓는 절거리가 재물을 차지하라는 敎, ㉔는 別敎로써 절거리가 만약 먼저 죽는다면 其弟兒斯奴가 財를 얻으라는 敎, ㉕는 또 別敎로써 末鄒·斯申支 2인이 나중에 다시 財에 대해서 말한다면 중죄로 다스리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여기서 前世二王은 斯夫智王이 實聖麻立干(402~417), 乃智王이 訥祗麻立干(417~457)으로 추정되므로⁴⁴⁾ 두 왕의 교는 각각의 재위 시에 내려졌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비문에서 ㉒-㉓가 實聖麻立干이 절거리의 재와 관련해 처음 내린 敎이며, ㉒-㉔가 訥祗麻立干이 절거리의 死後 其弟兒斯奴에게 財의 권리를 승계하라는 別敎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七王 등이 내린 당시의 교가 ㉒-㉕인 것이다. ㉒문단에서 實聖麻立干이 처음 내렸던 敎(㉓)에 대응해 訥祗麻立干과 七王 등이 내린 敎가 別敎(㉔·㉕)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敎耳’라는 표현이다. 耳는 말의 의미를 정돈하여 강조한다든가 종결하는 語氣詞의 용법으로 사용되어서, ‘敎耳’는 바로 그 앞 문장이 敎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㉒-㉓가 敎였음을 알게 된다.

비문상의 분쟁이 일어난 곳은 珍而麻村으로 道使가 파견된 중심촌락인 耽須와 함께 촌락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진이마촌의 節居利나 其弟兒斯奴, 말추·사신지 등은 중성리비에 등장하는 于居伐의 壹斯利, 蘓豆古利村의 仇鄒列支干支와 比竹休壹金智, 奈音支村의 卜步干支와 走斤壹金知, 珍伐의 壹[田]과 같은 촌락수장급의 인물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촌락의 지배권과

44) 『삼국유사』 왕력편에 訥祗麻立干의 一名을 內只王이라고도 한 것에서 乃智王이 눌지마립간임을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斯夫智王이 實聖麻立干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斯夫智王이 乃智王에 앞서 있기에 實聖麻立干으로 보고 있다.

연결된 조세수취권⁴⁵⁾을 두고서 수 십 년간에 걸친 분쟁을 벌였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財에 대한 권리가 節居利에서 其弟兒斯奴로 승계된다는 점이다. 其弟兒斯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먼저 비문의 탁본과 사진을 검토했을 때 弟보다는 弟(弟)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또한 6세기의 금석문에서 혈연관계를 표현할 때 家系の 대표적인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其妻’(단양적성비)·‘徙夫知王子郎’(川前里書石 追銘) 등으로 표기되는 추세가 확인되기 때문에⁴⁶⁾ 其弟兒斯奴는 其弟(절거리의 동생) 兒斯奴를 의미한다. 訥祗麻立干(417~457) 무렵 촌락의 지배권이 형인 節居利에게서 동생인 兒斯奴로 승계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소유권에 대한 측면에서 형제상속의 원리가 아직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시의 가족 형태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촌락사회 내부의 가족형태는 부부가족과 같은 단혼소가족보다는 둘 이상의 가족을 포함한 확대가족의 단위가 기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⁴⁷⁾ 나아가 이러한 가족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節居利 家系와 같은 수장계층의 촌락지배가 혈연적 공동체에 기반하여 전개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재의 권리를 놓고 분쟁을 벌였던 말주·사신지 같은 존재도 절거리·아사노와, 혹은 그들 자체가 혈연적으로 연결되었을 수 있겠다. 이렇듯 냉수리비 단계는 여전히 공동체적인 운영원리가 촌락민을 강하게 규정하는 가운데 국가가 財의 분쟁 등에 개입하면서 재지수장층을 정점으로 공동체적 성격이 내부화된 촌락사회를 분해해가는 과도

45) 安秉佑,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와 5~6세기 新羅의 社會經濟相」, 『한국고대사 연구』 3; 朱甫墩, 1989,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基礎的 檢討」, 『신라문화』 6

46) 深津行德, 2002, 「韓半島 出土 金石文에 보이는 親族呼稱에 대하여-川前里書石銘文을 中心으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3

47) 한국 고대의 가족형태에 대하여 삼국시대 초기부터 확대가족 속에서 부부가족 단위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발달하였다고 보고, 신라통일기에는 부부가족이 독자적인 단위로 대두하면서 확대가족의 기능과 결속력이 현저히 축소된다는 연구가 참고된다(노명호, 2003, 「한국 고대의 가족」, 『강좌 한국고대사』 3).

기적인 시기였다고 보인다. 절거리가 實聖麻立干으로부터 재의 권리를 인정받고 수 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혈연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증왕대 신라 촌락사회의 모습을 명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丹陽赤城新羅碑(550, 이하 적성비)는 신라가 적성지방을 점령한 후 공을 세운 적성 출신의 也尔次 가족 등을 포상하고 지역의 민들을 위무할 목적으로 건립되었다.⁴⁸⁾ 특히 節敎事는 이들에게 恩典을 내리면서 그 내용과 대상자들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당시의 ‘家’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는 적성비의 節敎事 부분이다.

赤城碑(節敎事부분)

- 6행 : (이상 생략) 節敎事赤城也尔次
- 7행 : □□□□中作善痛懷勲力使死人是以後其妻三
- 8행 : □□□□□□□□□□許利之四年小女師文
- 9행 : □□□□□□□□□□公兄鄒文村巴珍婁下干支
- 10행 : □□□□□□□□□□前者更赤城烟去使之後者公
- 11행 : □□□□□□□□□□異葉耶國法中分與雖然伊
- 12행 : □□□□□□□□□□子刀只小女烏禮兮撰干支
- 13행 : □□□□□□□□□□使法赤城佃舍法爲之別官賜
- 14행 : □□□□□弗兮女道豆只女悅利巴小子刀羅兮
- 15행 : □□□□□合五人之(이하 생략) ☒

48) 단양적성비의 건립연대는 진흥왕 12년(551) 이전임은 분명하며(이기동, 1984, 『新羅 官等制度의 成立年代 問題와 赤城碑의 發見』,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384~388쪽), 나아가 異斯夫의 활동과 연계하여 550년으로 추정하는 견해에 따른다(朱甫喲, 1984, 『丹陽新羅赤城碑의 再檢討』, 『慶北史學』 7;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184~190쪽).

이 부분은 비석 상단이 떨어져 나가면서 구체적인 은전의 내용과 대상들을 복원하기는 곤란하지만, 우선 女·小子·小女 등과 같은 용어에서 당시 신라가 지방민들을 최소한 남녀 2등급 이상[…丁(女)-小子(小女)…]으로 연령구분을 하여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10행의 ‘更赤城烟去使之’에서 확인되는 赤城烟은 적성의 烟 즉, 戶를 의미한다. 결국 당시 신라는 어느 정도의 연령 등급제를 기준으로 戶口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6세기 중엽의 戶口 문제를 고려할 때, 적성비 상단에서 떨어져나간 ‘六家’銘 비편에 주목하여 은전을 받은 戶가 六家였다고 이해한 연구가 주목된다.⁴⁹⁾ 먼저 절교사의 마지막 부분인 ‘別官賜□□□□弗兮女道豆只女悅利巴小子刀羅兮□□□□合五人之’의 合五人은 동일한 은전을 받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1家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가장 앞에 기록된 也尔次的 가족도 하나의 家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적성 공략 중에 사망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家長을 더하여 당시의 1家는 5~6명 규모의 單婚가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의 家(族)이 그 자체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戶’로 규정되었는지는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也尔次的 처자식처럼 家長이 사망하거나 家口數가 줄어든 가족의 경우는 賦稅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성산산성목간의 복수인명이 기재된 짐꼬리표목간의 수취 양상처럼 국가적인 보호책이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단양적성비의 赤城烟이나 성산산성목간을 통해 볼 때 6세기 중엽의 신라에서는 촌락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戶口조사가 이루어져 개별적 인신지배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과정은 또한 마립간시대 촌락공동체의 해체를 동반하면서 진행되었다.

49) 朱甫墩, 2002, 위의 책, 160~170쪽.

맺음말

지금까지 새롭게 발견되거나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6세기의 석비와 목간 자료들을 중심으로 신라 촌락의 내부 구조와 그 실상에 접근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중성리비」를 통하여 마립간시대의 촌락사회는 재지수장에 의한 인격적인 지배가 유지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사로 6부에게 정치적·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貢納과 奉仕의 책임을 다하는 복속 형태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재지사회의 정황은 6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 계층 분화에 따른 촌락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로국 6부체제를 극복하면서 등장하는 신라의 새로운 권력구조에 직면하게 되면서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촌락의 공동체적 질서 속에 존재하던 사람들을 신라국가의 公民으로 개인화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었다.

6세기 촌락 내부의 구조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성산산성 목간에 서 확인되는 本波·阿那·末那·前那 등의 용례이다. 이들 용어는 일종의 村 내부적인 地域(區域) 방향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곧 촌락의 분화 양상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표기임을 지적하였다. 당시 신라의 촌락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 자체 불균형적인 성장과 소멸의 과정을 경과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이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촌락사회의 안정적인 지배를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취의 과정에서 제작된 성산산성 목간에 이와 같은 촌락 내부의 현상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지배의 시선에서 촌락공동체 내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촌락과 촌락민의 경제력 등의 처지에 따른 세액의 차등 부과와 민과 노인의 공동 납부 등의 양상은 당시 신라 국가가 村落의 현황

과 내부 民의 정치경제적 사정까지도 파악하고자 수취를 진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냉수리비의 분쟁 사실은 여전히 공동체적인 운영원리가 촌락민을 강하게 규정하는 가운데 국가가 財의 분쟁 등에 개입하면서 재지수장층을 정점으로 공동체적 성격이 내부화된 촌락사회를 분해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단양적성비의 赤城烟이나 성산산성목간을 통해 볼 때 6세기 중엽의 신라에서는 촌락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戶口조사가 이루어져 개별적 인신지배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힐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6세기 신라의 촌락 구조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촌락 자체는 분화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촌락의 사람들도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촌락사회의 이러한 변동은 고대국가의 중앙집권화 과정에 연동하여 그 내부적 변화를 경과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촌락사회 내부의 자체적인 변화 과정에 대하여 국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6세기 촌락은 내적인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신라 국가라는 外力과 끊임없이 拮抗 관계를 형성하면서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한국의 고대목간』Ⅱ
- 강봉룡,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흥, 1995, 「한국사의 고·중세 시대구분」, 『한국고대사연구』 8
- 金在弘, 2001,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석, 2010, 「신라 법제의 형성 과정과 율령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8
- 노명호, 2003, 「한국 고대의 가족」, 『강좌 한국고대사』 3
- 노중국, 2010,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59
- 深津行徳, 2002, 「韓半島 出土 金石文에 보이는 親族呼稱에 대하여-川前里 書石銘文을 中心으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3
- 安秉佑,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와 5~6세기 新羅의 社會經濟相」, 『한국고대사연구』 3
- 윤선태, 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선태, 2012,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보여주는 ‘소리」, 『신라 최고의 금석문 포항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주류성
- 윤선태, 2012,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의 재검토」, 『사람』 41
- 이경섭, 2001, 「신라 上代의 稟主와 內省」, 『한국고대사연구』 22
- 이경섭, 2011, 「성산산성 출토 신라 짐꼬리표 목간의 지명 문제와 제작 단위」, 『신라사학보』 23
- 이경섭, 2013, 『신라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 이기동,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 이문기, 2009, 「포항中城里新羅碑의 발견과 그 의의」, 『韓國古代史研究』 56
- 이부오, 2014,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시사점」, 『韓國古代史探究』 16

- 이수훈, 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宇泰, 1981, 「新羅의 村과 村主」, 『韓國史論』 7
- 이우태, 1992, 「단양 신라 적성비 건립의 배경」, 『태동고전연구』 8
- 이인철, 1993, 「新羅의 村과 村民支配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李鍾旭, 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 이종욱, 1980, 「新羅帳籍을 통하여 본 統一新羅의 村落支配體制」, 『歷史學報』 86
- 이창훈, 1999, 「7세기 신라 민의 재편과정」, 『한국고대사연구』 16
- 이하나, 2013, 「신라 철제농구의 변천과 확산」, 『한국고고학보』 86
- 전덕재, 1996, 『신라육부체제연구』, 일조각
- 전덕재, 2007, 「함안 성산성성 목간의 내용과 중고기 신라의 수취체계」 『역사와 현실』 65
- 朱甫墩, 1984, 「丹陽新羅赤城碑의 再檢討」, 『慶北史學』 7
- 朱甫墩, 1989,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基礎的 檢討」, 『신라문화』 6
- 주보돈, 1995, 「新羅 中古期の 地方統治와 村落」,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 주보돈, 2000, 「신라 중고기 촌의 성격」, 『경북사학』 23
- 주보돈, 2007, 「韓國 古代 村落史研究의 進展을 위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8
- 주보돈, 2012, 「포항중성리신라비의 構造와 내용」, 『한국고대사연구』 65
- 홍승우, 2012,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분쟁과 판결」, 『신라 최고의 금석문 포항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주류성
- 홍승우, 2014,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신라의 부와 지방지배」, 『한국문화』 66

Abstract

The Village Structures of Silla in the Sixth Century based on Epigraphs and Wooden Tablets

Lee, Kyoung 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nal structures and facts of villages in Silla based on the epigraphs and wooden tablets from the sixth century. For this purpose,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village society during the Maripgan period depicted in the “Silla Tombstone in Jungseong-ri, Pohang” and found that the local heads maintained their character-based rule in the villages but were dependent on the six Bus of Sill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 their subjugation to Silla via tributes and service.

In the “Wooden Tablets of Seongsan Mountain Fortress,” the examples of Bonpa, Ana, Malna, and Jeonna were terms to refer to the internal directions and scopes of areas(zones) in the villages and marks to show the division patterns of villages clearly. They were used for the state to understand changes to the village communities and govern them. Different amounts of taxes were imposed on villages and village people according to their economic status, and common people were allowed to pay joint taxes with the elderl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illa understood the current states of villages and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to collect taxes.

The disputes depicted in “Silla Tombstone in Naengsu-ri, Pohang” show that Silla was in a transitional period as the state intervened in people’s disputes over wealth and caused the community nature under the leadership of local heads to break down the internalized village society while the community-based management principles still had a strong grip over the village people. The Jeokseongyeon in “Silla Tombstone in Jeokseong, Danyang” and the wooden tablets of Seongsan Mountain Fortress indicate that the government carried out basic census on village people and applied much advanced governance to individual residents in Silla in the middle sixth century.

Keywords : Silla, Village, Silla Tombstone in Jungseong-ri, Wooden Tablets of Seongsan Mountain Fortress, Silla Tombstone in Jeokseong, Silla Tombstone in Naengsu-ri